

11. 중 · 근세 동아시아의 교류 ①왜구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0. 참고연표 (ppt09&10과 동일)

	중국	한반도	일본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
14C	원(元)	고려(高麗)	가마쿠라 시대	가마쿠라 막부 설립(1333), (일본)남북조시대 시작(1336), 무로마치 막부 수립(1338)
15C	명(明)		무로마치 시대	막부조 시대 창 건국(1368), 요우릉 보반사건(1380) 조선 건국, (일본)남북조시대 종결(1392), 남북 보반사건(1393), 정난의 역(1398) 소근 요시미즈의 책봉(1401), 정화의 원정(1405-33), 이종무의 대마도 원정(1419) 계해약조(1443), 음민정촌 창제(1446), 돌무질의 난(1448-9)
16C			전국 시대	호닌의 난(1467-77)과 전국시대 시작 경국대전 반포(1485),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유록·유철의 난(1510-2), 삼포의 난(1510), 기포사화(1519) 백문동서원 창립(1543) 오다 노부나가와 오다 집성과 전국시대의 종말(1568)
17C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장거정의 개혁시작(1572), 무로마치 막부 멸망(1573), 돌인·서인의 분열(1575) 노부나가 암살(1582),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통일(1590),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18C	청(淸)	조선(朝鮮)	에도(江戸) 시대	세키가하라 전투(1600), 에도 막부 수립(1603), 복인의 광해군 주대(1608), 기유조약(1609), 오사카 전투(1614-5), 호국 건국(1616) 인조반정과 서인 북서(1623), 돌림당의 대한암(1625-6), 정묘호란(1627), 일본의 쇄국체제 완성(1639) 호국의 국호변경(『정』)(1636), 병자호란(1636), 이자성의 『대순』 건국과 명의 멸망(1644) 남명 정권 멸망(1661), 『태평성대』(1661-1795), 삼번의 난(1673-81), 여승농정(1674) 네르킨스크 조약(1689)
19C			메이지	고조개혁(1710) 영조 즉위와 왕결책(1724) 간세이개혁(1790) 순조 즉위와 세도정치 시작(1800), 신유사촌(1801), 흥경래의 난(1811) 기해사촌(1839), 연포개혁(1840), 페리제독의 일본내항(1853) 진주민란(1862), 고종 즉위와 대원군 집권(1863), 병인양요(1866), 메이지유신(1868), 신미양요와 대원군의 서원철폐(1871)

1. 개괄: 「왜구」(倭寇)란?

• 사전적 정의

- : 「왜」(일본의 별칭)+「구」(寇: 도적, 도적질하다)
- : 한문사료에 「왜(주어)+구(동사)+XX(지명)」→앞의 두 자가 명사化
- : 13C~16C에 걸쳐 활동한 일본인 중심의 해상세력
→해적질(약탈&습격)과 무역(공/사/불법무역)을 병행
- : 근거지는 시대별로 다르나, 일본 북규슈(北九州) 일대가 대표적
ex. 츠시마(對馬), 이키(壹岐), 마츠라(松浦)
- : 현재에도 한국·중국에서 일본인에 대한 멸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 시대별 구분과 주 활동지역

- : 활동시기에 따라 「전기왜구」(14C)·「후기왜구」(16C)로 대별
- : 전자의 주 활동지역은 한반도였으며, 후자는 중국 동남부 연안지대 및 동남아 일대

1. 개괄: 참고도판

왜구 (출전: Wikipedia Japan)



왜구의 시기별 활동지역 (아틀라스일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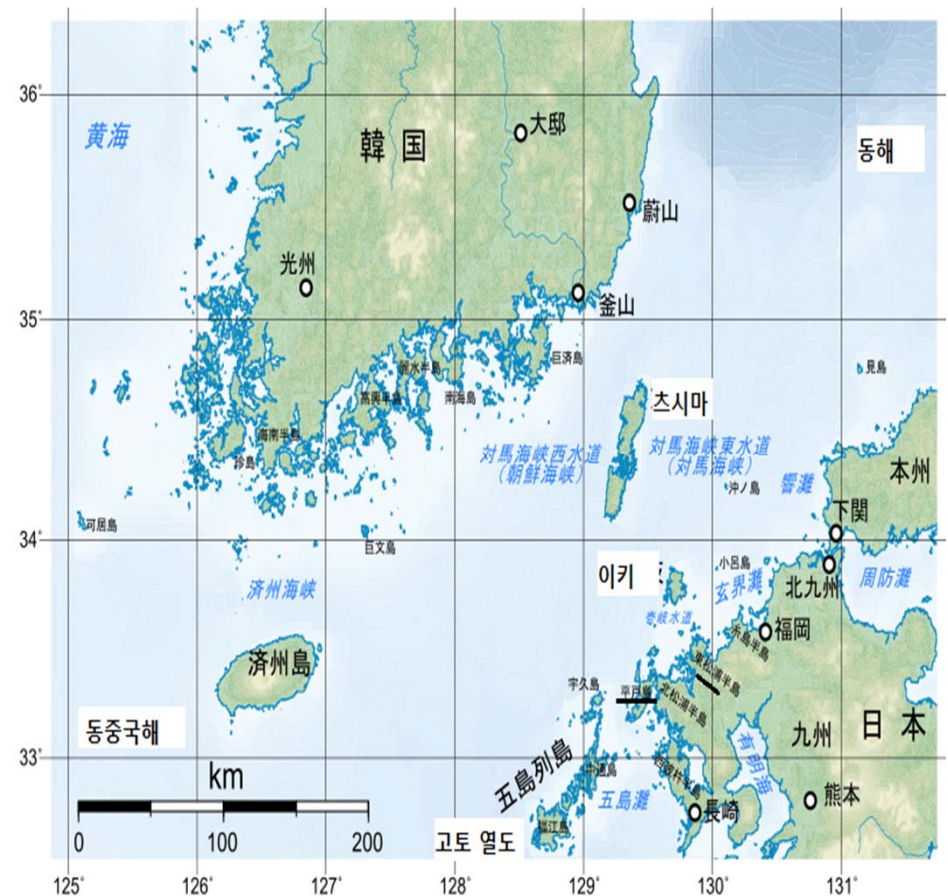
2. 전기 왜구(前期倭寇)

• 개괄

: 14C 중엽 일본이 남북조 분열기를 맞이하여 중앙권력이 약화된 틈을 타 활동을 시작. 한반도와 중국 역시 고려→조선, 원→명의 교체로 인한 혼란기

: 본거지는 일본의 세토 내해(瀬戸内海)와 북규슈(北九州)로, 일본인 대다수에 약간의 고려인도 있었다 함(논란 있음). 한반도가 주된 활동(=약탈)지역으로, 황해에 인접한 중국 연안에도 출몰

: 이후 한중일에 강력한 중앙정권이 성립하면서 약화/소멸. 즉 조선왕조가 건국한 뒤 회유/진압책을 병행하였고, 명이 건국한 뒤 무역허가를 조건으로 왜구토벌을 무로마치 막부에 요청하였는데, 막부가 이에 응하여 진압에 나섬. 그 결과 명일무역(=감합무역)이 성립



2. 전기 왜구(前期倭寇)

• 개괄 (계속)

: 주 활동무대가 한반도였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왜구」라 하면 대체로 이 전기왜구를 의미함. 다만 일본사/중국사에서는 후기 왜구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함

• 전기왜구의 발생원인

: 여러 설 존재. 이하 일부를 소개함.

①가마쿠라 시대 몽골의 일본침공(13C)에 대한 보복이라는 설
→츠시마 · 이키같은 북규슈 일대는 그 최대 피해지역. 지역민들의 악감정을 해적들이 이용하여, 침공에 가담했던 고려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해적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 추정

②반명(反明)세력의 선동설...명 건국과정에서 주원장 세력과 반목했던 이들 일부가 일본에 도피. 일본인들을 선동하여 산둥 일대를 침공하게 했을 것이라 추정

2. 전기 왜구(前期倭寇)

- 전기왜구의 발생원인 (계속)

- ③왜장 후지 츠네미츠(藤經光) 살해계획에 대한 보복설
→1375년 고려가 그를 쫓아내 살해하려다 실패(『고려사』)

- 전기왜구에 대한 고려의 대응

- :『고려사』에는, 1223년 왜구가 금주(金州: 김해)에 침입했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몽골의 일본침공 이전인 1265년까지 11차례의 침입기록이 있음. 한국사에서는 이를 「13세기 왜구」라 하여 「전기왜구」와 구별하기도 함. 두 차례에 걸친 몽골의 일본침공 이후 14C 중엽까지 약 80년 동안 왜구는 출몰X

- : 이후 왜구는 1350년부터 고려에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전기왜구」의 시작인데, 한반도 전 연안 뿐 아니라 내륙까지 침범했다. 수도인 개경 입구인 강화와 예성강 어귀에까지 출몰해 개경의 치안을 위협하였기에, 고려는 천도를 고민하기도 했다. (전술한 13C왜구 때와는 피해규모가 다름)

2. 전기 왜구(前期倭寇)

• 전기왜구에 대한 고려의 대응 (계속)

: 전기왜구는 1370~80년대에 가장 활동적이어서, 고려의 경우 우왕 재위기간(1374~88)동안 총378회의 침입을 받았다 하며, 명조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 이처럼 왜구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지자, 고려는 1366년 김일(金逸)을 무로마치 막부에 보내어 왜구의 단속을 요구했으며, 1375년에 나흥유(羅興儒), 1377년에는 정몽주(鄭夢周)를 다시 파견하였다. 특히 정몽주는 막부의 협조로 잡혀갔던 고려인 수백을 데리고 돌아오기도 했다.

: 고려는 왜구에 대해 진압과 회유를 병행했는데, 먼저 대표적인 진압사례는 이하와 같다. ①최영(崔瑩)의 「홍산(鴻山: 現 논산)대첩(1376)」, ②나세(羅世)·최무선(崔茂宣) 등의 「진포(鎭浦)전투」(1380), ③이성계(李成桂) 등의 「황산(荒山)대첩」(1380), ④정지(鄭地)의 「남해(南海)대첩」(1383) 등. 특히 화약을 이용한 최무선의 활약은 대중적으로도 유명하다.

2. 전기 왜구(前期倭寇)

• 전기왜구에 대한 고려의 대응 (계속)

: 한편, 대표적인 회유책은 「왜인만호부」(倭人萬戶府)를 설치하여 투항한 왜인들을 백성으로 삼아 정주시킨다는 것이었는데 효과는 그다지 크지 못했던 듯 하다.

: 고려는 국내로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사력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왜구의 근거지를 정벌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전함을 만들고 수군을 편성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 이런 고려의 왜구정벌 시도는 왜구에 의한 피해를 막을 목적 이외에도, 명군이 왜구토벌을 빌미로 원대의 경우처럼 고려에 머물며 횡포를 놓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명은 고려(+조선)가 왜와 내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서 군사적인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이유가 고려로 하여금 왜구정벌에 나서게 했다.

2. 전기 왜구(前期倭寇)

• 전기왜구에 대한 고려의 대응 (계속)

: 한편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도 고려와 명의 의심을 잠재우고, 남북조 분열기에 일본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대외적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토벌협조는 그 좋은 방법이 되었다.

: 고려말인 1389년에 단행된 츠시마 정벌은, 이처럼 동아시아 3국의 이해가 맞아 이루어진 군사적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그 해 2월, 병선 백여 척이 동원된 이 정벌에서, 고려군은 경상도 원수(慶尙道元帥) 박위(朴葦)의 지휘 하에 적선 3백여 척을 불사르고 잡혀갔던 고려인 백여 명을 구출했다 한다. 이 정벌로 고려는 국내외적으로 손상된 체면을 회복할 수 있었다.

: 한편, 이 과정에서 고려에 협조한 무로마치 막부와 북조는, 그 결과 명으로부터도 호의적 반응을 얻어내어, 대외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인정받아 남조에 대해 외교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후술)

3. 명(明)의 건국과 감합무역(勘合貿易): 전기왜구 소멸 이후의 전개①

• 명과 일본의 국교회복

: 1368년 중국에서 명이 건국. 건국 직후 명은 규슈를 지배하던 남조계열 세력에게도 사자를 보내, 무역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왜구의 단속을 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함.

: 1392년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시킨 쇼군 요시미츠는 막부의 권력강화를 위해 명과의 무역을 원했고, 명에 사절을 파견하여 (1401), 통교를 시도함. 명은 왜구진압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요시미츠는 이에 응해 왜구를 진압함.

: 그 결과 조공/책봉을 통한 정식 교류(=국교수립)가 시작됨. 요시미츠는 명으로부터 「日本國王」(=明황제의 신하)에 책봉되고 명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는 일본사에서는 대단히 드문 일이었음. 즉, 일본이 중국과 정식 국교를 다시 맺은 것은 견당사 폐지 이래 근 500년 만의 일이며, 책봉까지 받은 것은 5C 왜의 5왕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임.

3. 명(明)의 건국과 감합무역(勘合貿易): 전기왜구 소멸 이후의 전개①

• 감합무역의 시작과 전개

: 요시미츠가 이 시기 명과의 국교수립을 계획하게 된 배경에는, 오우치(大內) 일족 등 서쪽의 유력 슈고다이묘들이 중국과의 사무역(+밀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다. 이는 막부지배에 위협이 되었고, 요시미츠는 국교회복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이들을 견제하려 한 것이다.

: 게다가 일본이 아직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던 시대였기에, 요시미츠가 명에게서 수입한 막대한 양의 동전(明錢: 영락통보 등)은 그에게 국내통화의 발행권 독점과 같은 특전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명과 일본의 공무역을 「감합무역」이라 한다. 감합이란 증표가 있어야 하는 감합무역은 1401년부터 1549년까지 총 19차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일본의 「견명선」(遣明船)이 양국을 왕래하였다.

3. 명(明)의 건국과 감함무역(勘合貿易): 전기왜구 소멸 이후의 전개①

• 감함무역의 시작과 전개 (계속)

: 이런 감함무역은 요시미츠의 다음 쇼군이 조공/책봉이란 상하 관계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후 악화된 막부재정을 메울 목적으로 6대 쇼군이 재개하였다.

: 일본의 조공사절단은 명의 영파(寧波)에서 검사절차를 거친 후 북경에 가서 교역했다. 명의 동전 이외에도, 명에게서 수입한 생사(生絲)는 이들 사절단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적게는 4~5배 많게는 20배까지 이익이 남았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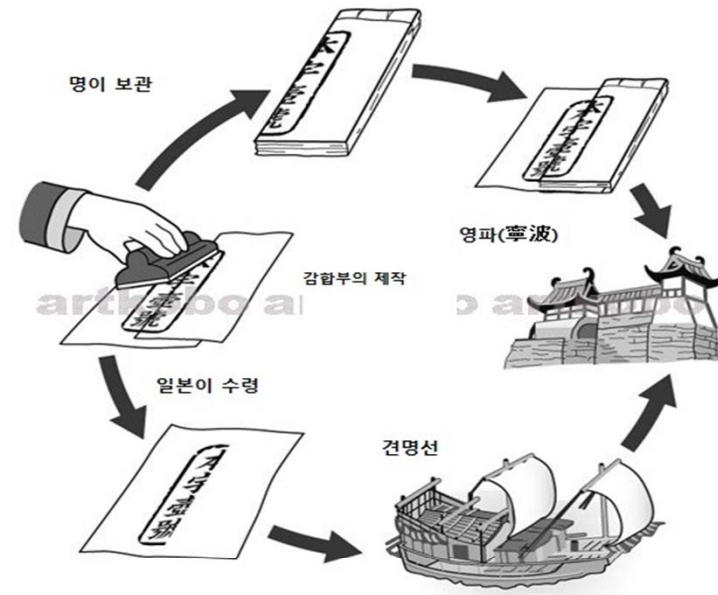
: 이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감함무역은, 그 시행초기에는 요시미츠의 지휘하에 막부가 그 운영을 독점했다. 하지만 15C 후반 전국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명무실해진 막부를 대신하여 오우치 일족+하카타(博多)상인, 그리고 다른 유력 슈고다이묘인 호소카와(細川) 일족+사카이(堺)상인 세력이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대립했다. 이들은 무력충돌도 불사했으며, 심지어 이를 중국 땅에서 일으키기도 했다(영파의 난: 1523). 이 대립은 결과적으로 오우치 일족의 승리로 끝났지만, 곧이어 오우치 일족이 멸망하면서(1551) 감함무역 자체도 끝나게 된다.

3. 명(明)의 건국과 감합무역(勘合貿易): 참고도판

감합무역 루트



감합의 제작과정과 영락통보



4. 조선(朝鮮)의 건국과 왜구 문제: 전기왜구 소멸 이후의 전개②

• 조선의 대응①: 회유

: 조선 왕조가 건국(1392)한 이후에도, 비록 고려 말 정도는 아니었지만 왜구의 한반도 약탈은 계속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1393년에서 1397년 사이에 왜구의 침입은 50회를 넘었다 한다. 태조 이성계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간주하여 일본 측에 사절을 보내거나, 귀화하는 왜인들을 우대하거나 했다.

: 또한 왜구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의 만성적인 물자(특히 식량)부족이었으므로, 이들이 약탈이 아닌 교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항구를 개항하기도 했다. 태종 대에 부산포(富山浦)·내이포(乃而浦)·염포(鹽浦)·가배량(加背梁)의 4포를 개항하여 이들의 왕래를 촉진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회유책으로 조선 초에는 한일 간 평화적 사절의 왕래와 귀화를 원하는 왜인들이 증가하기도 했다(+명의 해금海禁정책 시작).

4. 조선(朝鮮)의 건국과 왜구 문제: 전기왜구 소멸 이후의 전개②

• 조선의 대응②: 무력진압

: 한편, 회유와 함께 무력토벌도 병행되었다. 1396년 왜구가 경상도 동래 일대를 침략한 것에 대해, 조선은 츠시마·이키에 원정군을 파견하여 응수했다. 그럼에도 왜구가 출몰하자 보다 대규모의 원정군을 파견, 토벌에 나서는데, 이것이 유명한 이종무(李從茂)의 「기해동정」(己亥東征: 1419)이다.

: 이는 무로마치 막부나 츠시마의 지배자인 소(宗) 일족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원정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학계의 평가가 엇갈린다.

: 확실한 점은 이후 삼포(부산포, 내이포, 염포)를 개항하고 이 지역에 왜관(倭館)을 설치하여 일정규모의 무역을 허용한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만성적인 물자부족에 시달리던 츠시마인은 항상 더 많은 교역을 원했고,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삼포의 난」 등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상의 회유책으로 전기왜구에 의한 피해는 사실상 소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후기 왜구(後期倭寇)

• 개괄

: 일본이 전국시대에 돌입하면서 무로마치 막부가 유명무실해지자, 지방의 실력자들인 슈고다이묘들은 각자도생에 나섰다. 이는 서일본 지역의 해상세력들이 다시금 왜구化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처럼 16C 전국시대에 출현한 왜구를 「후기왜구」라 한다.

: 후기왜구에 의한 피해는 1553~62년의 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주된 활동지역이 중국 동남부 연안지대였던 탓에, 명조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한다. 이들 후기왜구의 규모는 적게는 2~3척, 많게는 200~300척으로 다양하며, 주 근거지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츠시마 · 이키 · 마츠라 등 북규슈 일대였다 한다.

5. 후기 왜구(後期倭寇)

• 후기왜구의 다양한 인적구성

: 후기왜구의 특징적인 점은 일본인 이외에 중국인도 다수 포함(+일부 조선인, 포르투갈인 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중국인 세력은 원래 사무역에 종사하던 절강·복건성 지역 출신자들로, 명의 해금정책을 피해 중국 외부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가 북규슈의 일본인 해상세력과 연합하여, 무장한 바다상인化(즉 교역+약탈 병행)했다고 추정된다.

: 따라서 이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중국 동남연안과 대만, 해남도(海南島)가 되었고, 일부는 해당지역의 유력 신사(紳士)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한다. 이후에는 서구 대항해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아시아로 진출한 포르투갈·스페인 세력, 그리고 일본의 하카타 상인들과도 밀무역을 행했다고도 한다. 한편으로 당시 중국의 조공국이던 류큐왕국(琉球王國: 現오кина와)의 조공무역선을 습격하거나, 오키나와 일대를 약탈하거나 하여 종종 류큐왕국의 병력과 충돌했다고도 한다.

5. 후기 왜구(後期倭寇)

- 후기왜구의 다양한 인적구성 (계속)

: 이런 후기왜구의 다양한 인적구성의 상징적 존재가 중국인 왜구 두령 왕직(王直)이다. 그는 규슈의 히라도(平戶) · 고토 열도(五島列島)를 거점으로 활동하였으며, 일본이 서구 상인들로부터 첼포(=총)를 수입하는 과정에도 관계했다고 전해진다. 그밖에 서해(徐海) · 이광두(李光頭) · 허동(許棟) 등이 중국인 왜구 두령으로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 이후의 전개와 소멸

: 16C 중엽 후기왜구의 대규모 약탈이 시작되자, 명조 내부에 서도 해금을 완화하여 현상을 타개하자는 주장이 등장한다. 동시에 호종헌(胡宗憲) · 척계광(戚繼光) 등의 활약으로 왜구세력의 약화에도 성공했다. 결국 명조는 이후 해금의 완화 쪽으로 정책을 바꾸어, 동남아시아나 포르투갈 등과의 무역을 허용한다.

5. 후기 왜구(後期倭寇)

• 이후의 전개와 소멸 (계속)

: 이런 해금완화 정책은 후기왜구의 약탈동기를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그 결과 왜구의 약탈행위는 중국에서 진정세에 접어든다. 다만 명조는 일본에 대해서만은 후기왜구에게 거점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공무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왜구는 이후로도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 그러나 당시 일본통일을 목전에 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권안정을 위해, 자신의 동의 없는 무력다툼, 그리고 자신에게 복속한 무사집단 이외의 무장해제를 일본전역에 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상의 독립세력이던 왜구에 대해서도, 1588년 「해적정지령」을 선포하여 단속에 나섰고, 그 결과 후기왜구는 최종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5. 후기 왜구(後期倭寇)

• 왜구의 국적문제를 둘러싼 논란

: 전기왜구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인들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중일 학계의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1980년대까지의 일본학자 일부는 여기에 약간의 고려 천민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고려인들로만 구성된 세력도 존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일본학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그 결과 현재 일본학계의 입장은 왜구의 주 세력이 한반도에도 있었다는 주장에 부정적이며, 천민들이 일부 가담하거나 위장하여 약탈을 행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에 대해서도, 왜구의 습격이 먼저 있었고, 이로부터 약간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편승행위이므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한편 후기왜구에 관해서는, 전술한 것처럼 그 다양한 구성 때문에 문제가 보다 복잡하다. 특히 1990년대부터 이들 후기 왜구의 다양한 구성원에 주목하여, (계속)

5. 후기 왜구(後期倭寇)

• 왜구의 국적문제를 둘러싼 논란 (계속)

: (계속) 이들을 일종의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집단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일본학계에서 제기되었다. 즉, 일본 규슈, 한반도 연안, 중국연안이란 環동중국해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일본」과는 별개의 인간집단이자, 변경을 살아가는 사람들(marginal man)이라 하여 자국사 중심적이 되기 일쑤인 역사연구를 재고할 수 있는 사례로 삼자는 주장이었다.

: 이런 연구동향의 취지는 나름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 때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일본의 우익교과서 제작집단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이런 해석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악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즉, 이상의 transnational한 해석을 이용하여, 왜구에는 사실 한국인과 중국인들도 많은데 이를 모두 일본인의 악행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5. 후기 왜구(後期倭寇)

• 왜구의 국적문제를 둘러싼 논란 (계속)

: 이런 새역모의 주장에 대해 한중일 역사학계에서 다시 비판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상의 transnational한 해석 자체에 대해서도 특히 일본학계의 비판이 이루어졌다. 즉 고려(조선)나 명의 조정이 일본을 국가로 인식하여 작성한 문서에는 「일본」, 그렇지 않을 때는(+약간의 멸시감) 「왜」라고 표현했을 뿐으로, 이는 같은 사물의 서로 다른 측면에 불과하므로 왜구와 중세일본을 별개의 집단이라 보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학계의 주류 견해는 한국·중국학계의 통설과 현재 대체로 동일하다 할 수 있다.

: 참고로 중국학계의 경우, 전기왜구의 주력이 일본인임은 분명하고, 후기왜구에 중국인이 가세했다 해도 이들은 주력이 아니며, 무엇보다 왜구의 기원 자체가 일본과 관계가 깊다고 보아, 전술한 transnational한 해석 자체에 부정적이다.

5. 후기 왜구(後期倭寇)

· 왜구 이후의 동아시아 해상세계

: 동아시아에서의 「왜구」문제를 개괄하자면, 왜구의 활동은 중국의 명이나 한반도의 고려·조선왕조, 그리고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에게 결과적으로 상당한 정치·외교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명은 막부에게 왜구토벌을 요청하는 대가로 감함 무역이란 편의를 제공해야 했다. 그리고 고려는 왜구토벌로 명성을 얻은 이성계에게 멸망했고,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왕조도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회유·진압 양쪽으로 왜구대책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 이처럼 당시 한중일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왜구는, 일단 히데요시의 단속에 의해 소멸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해상 세계에는 이후로도 半상인·半해적 집단이 끊이지 않는다. 가령 17C에 활동했던 정성공(鄭成功=國姓爺=Koxinga)의 이름은 중국(+대만)과 일본 모두에서 현재에도 유명하며, 그밖에 임도건(林道乾)·임봉(林鳳)·정지룡(鄭芝龍)도 이런 해상세력의 대표들로 알려져 있다.

5. 후기 왜구(後期倭寇)

• 왜구 이후의 동아시아 해상세계 (계속)

: 후기왜구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들 중국 동남부(광둥 · 복건 · 절강 · 대만 등) 출신자들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요코하마(橫濱) · 고베(神戸) · 나가사키(長崎)의 3대 중화권을 형성하거나, 혹은 동남아시아로 건너가 현지에서 화교(화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현재에도 정치/경제 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한편 히데요시의 단속 이후에도 중국 · 동남아 일대를 왕래하던 일본의 해상세력 역시 동남아 일대에 일본인 마을을 형성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17C 수립된 에도막부가 「쇄국」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3. 과제

Q.1 이하의 영상을 시청한 뒤 과제를 작성할 것

- 1) <https://www.youtube.com/watch?v=DCzmlVIKDrg> (약7분)
- 2) <https://www.youtube.com/watch?v=dukQWB-NXAE> (약4분30초)
- 3) <https://www.youtube.com/watch?v=ICAvBplsOfs> (약4분)
- 4) https://www.youtube.com/watch?v=Egffv2x4K_0 (약2분30초)
- 5) <https://www.youtube.com/watch?v=7wyf785jOzQ> (약4분50초)
- 6) <https://www.youtube.com/watch?v=9eecIDDV1nk> (약5분)
- 7) <https://www.youtube.com/watch?v=HsljZ5Rcu1A> (약4분40초)
- 8) <https://www.youtube.com/watch?v=5FUWPloSld4> (약4분50초)

Q.1-1 영상1), 2)에 나오는 『몽고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는 왜 제작되었을까 추정해 보시오.

Q.1-2 영상4)에 나오는 동북아재단 김민규 박사의 왜구에 관한 설명 중에는 그 설명의 내용과는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용어가 등장한다. 아마도 설명상의 편의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용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지 추론해 보시오. (일본 중/근세 보조교재에서 내가 설명한 적은 없는 부분이므로, 답하지 못해도 감점은 없으나, 정답을 맞힌 경우에는 추가점이 주어질 것)

Q.1-3 위의 영상들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문을 작성하시오.

*이상에 대한 답변은 모두 합해 A4 양면 1장 정도의 분량 정도로 작성할 것.

3. 과제

Q.2 이하의 테마에 관해 A4 1면 정도의 분량으로 조사해 오시오.

「이성계와 왜구토벌」 (중국 · 일본인 유학생의 경우)

「정성공」 (한국인 학생 및 중국 · 일본 이외 지역 유학생의 경우)